

경영지원부
이남희 대리



난가 명절 수요로 상승전망
- 계란생산계군 증가로 명절 이후 움직임 불안 -

◆ 동향

난가가 예상과 달리 12월 가공수요 증가에 따른 강세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다. 명절이후 9~10월 난가하락과 함께 노계도태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인 후 반등하면서 도태가 주춤하였고, 12월 연말수요까지 바라보고 강제 환우에 가담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초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계란생산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농가에서 조기도태보다는 강제 환우를 통한 생산기간 연장을 선호하고 있어 산란계 사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난가에 생산자명을 표기하도록 축산물표시기준이 변경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 최소포장단위에 계란유통기간,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한 바 있다. 더욱 강화된 축산물표시기준을 시행에 앞서 숙지하시어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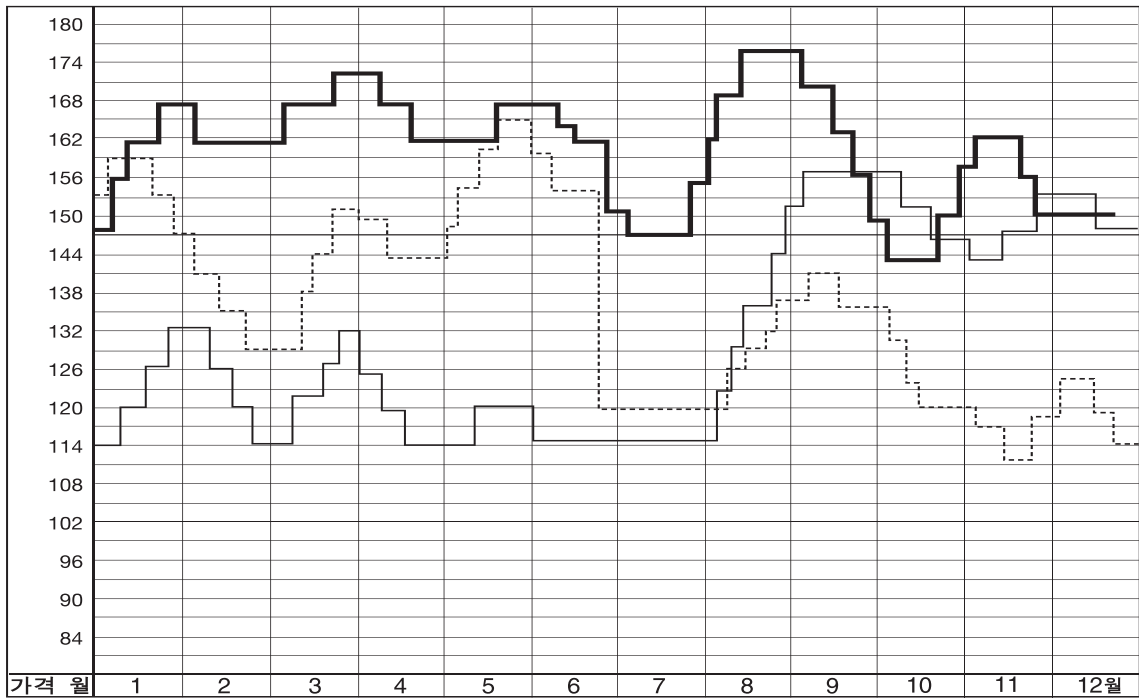
◆ 자료분석

11월 산란중계 입식수는 96,692수로 전년대비 124.8%증가하였다. 올해 총 산란중계입식수는 약 66만수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대비 23.6%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병아리 생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고스란히 내년도 하반기 난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산란병아리 공급량은 3,086천수로 전년대비 1.5%감소하였으며, '11년 병아리 총 분양수는 32백만수가 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0.2%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초 고병원성 AI로 인한 큰 혼란을 겪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11월 산란노계도태수는 1,962천수로 전년대비 1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계수치는 전년동기기간대비 14.6%감소해 연중 난가에 대한 농가의 높은 기대심을 반영했다.

◆ 전망

명절 특수가 위치한 만큼 난가는 1월 중순까지 강세가 전망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환우계군과 신계군의 증가로 계란생산잠재력 또한 높아 큰 폭의 상승세는 무리가 따르겠다. 따라서 난가는 1월 중순까지 강세를 보이며 160원후반대까지 상승하겠으나 신계군의 생산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명절 이후 약세권이 시작되면 평년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내년도 난가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그려지고 있다. '11년도 계란단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많은 농가에서 계사규모를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병아리 공급이 정상화 된 이후에도 병아리수요가 증가해 단가는 고가를 형성하였다. 크게 증가한 산란중계가 실제 난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로 예상되지만, 노계도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9-- 2010 - 2011 -

▶ 병아리 · 사료 · 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3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4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5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6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7	2008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8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9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10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11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12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계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